

2016년 '양지리 레지던시' 오픈콜



《리얼 디엠지 프로젝트 2014》 오픈닝 전경(2014년 8월 30일)

리얼디엠지프로젝트 기획위원회는 비무장지대(DMZ)의 역설적 상황에 대한 다각적인 고찰을 바탕으로 한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창작 활동의 플랫폼을 마련하고자 2016년부터 '양지리 레지던시' 오픈콜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본 레지던시는 철원군과 강원도가 후원합니다.

1. 모집개요	모집인원	00명/팀
	신청자격	국내 6개월 이상 체류 가능한 시각예술가
	기간	2016년 4월 - 10월
	장소	양지리 레지던시(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양지 2길 34)

2.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2016년 1월 8일(금) - 2016년 2월 10일(수) 17:00 까지
	접수방법	yangjiri.residency@gmail.com

3. 제출서류	1. 인적사항 및 경력사항
	2. 여권 사본(해외 국적일 경우)
	3. 레지던시 희망 기간 (4월 - 10월 중 내국인 최대 6개월, 외국인 최대 3개월 신청 가능)
	4. 활동계획서: 프로젝트 내용 및 의도, 월별 계획서(A4 5장 이내)
	5. 포트폴리오: 디지털 스틸 이미지 15개 이내, 동영상의 경우 5분 이내
4. 심사 및 선발 일정	1차 서류 심사: 2016. 2월 중 예정
	1차 서류 심사: 2016. 2월 중 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 2016. 3월 초 예정
	※ 1차 합격자와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위 일정은 리얼디엠지프로젝트 기획위원회의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5. 지원 사항	레지던시: 스튜디오, 방 2, 화장실 2, 부엌, 마당 공간(PDF 파일 참고)
	창작 및 연구 지원: 약 80만원/월
	국내외 기획자, 작가들의 DMZ 접경지역 방문시 레지던시 방문 및 멘토링
	오픈 스튜디오/토크 프로그램 등 개최 시 온라인 홍보 협조
	리얼 디엠지 프로젝트 전시 참여 논의 가능
6. 의무 사항	주4일 이상 레지던시 사용 (장기 부재시 사전에 리얼디엠지프로젝트 기획위원회에 알리고 협의해야 함)
	지역 주민 연계 프로그램 1회
	월별 프로젝트 과정 공유 및 종료 후 작업 프로포절 제출 (추후 리얼 디엠지 프로젝트 참여 가능)
	리얼 디엠지 프로젝트 관련 프로그램 적극 참여 및 사용규칙 준수
	레지던시 종료 시 공간 원상 복구
7. 유의 사항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레지던시 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의 내용 중 의도적인 미기입 사항이나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레지던시 입주기간 동안 본 프로그램 이외의 국내외 레지던시(유사기관)에 동시 입주 중이거나 입주할 예정인 경우
	개인 일정으로 프로젝트 활동을 원활히 유지할 수 없는 경우

8. 참고 사항	<p>서울 시내에서 양지리 마을까지 약 2.5 ~ 3시간 소요</p> <p>식음료, 자재 등 구입을 위해서는 시내로 이동해야 하므로 자차 운전 가능할 경우 편리</p> <p>레지던시가 일반 거주지역에 위치해 있으므로 마을 주민 배려 필요 (야간 시간대 소음 발생 작업 불가 등)</p>
9. 문의	<p>리얼디엠지프로젝트 기획위원회(담당자: 박혜진)</p> <p>T: 02-739-7068</p> <p>E: yangjiri.residency@gmail.com</p> <p>홈페이지: www.realmz.org ※ 자세한 사항은 <www.realmz.org/project/2015/category/whatson/>에서 PDF 첨부파일 참고</p>

양지리 레지던시 소개



2014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양지리 레지던시'는 강원도 철원군 양지리에 소재한 빈 집을 개조한 시설로, 국내외 예술인들과 연구자들이 DMZ의 장소성, 역사적 의미, 인문 사회학적 연구를 현장에서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왔으며, 그들의 연구와 작업을 지원하였다. 참가자들은 철원을 중심으로 DMZ의 역사, 기억, 자연과 삶의 이야기를 찾아내고, 사진, 영상, 미디어 설치, 출판, 비평, 연구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DMZ를 새롭게 조명해왔다. 그 동안 작가들은 양지리 마을에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간 머물며 작업 과정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들의 삶과 예술의 연결점을 찾아왔다. 지금까지 방문한 레지던시 작가로는 2014년 잉고 니어만(Ingo Niermann, 독일), 미카엘 레빈

(Mikael Levin, 미국), 김주현(한국), 아드리안 비야 로하스(Adrián Villar Rojas, 아르헨티나), 오렌 암바치(Oren Ambarchi, 호주), 미카 바이니오(Mika Vainio, 핀란드)를 비롯해 2015년에는 미카엘 레빈, 천제련(Chen Chieh-jen, 대만), 송상희(한국), 알랭 드클레르크(Alain Declercq, 프랑스), 토모코 요네다(Tomoko Yoneda, 일본)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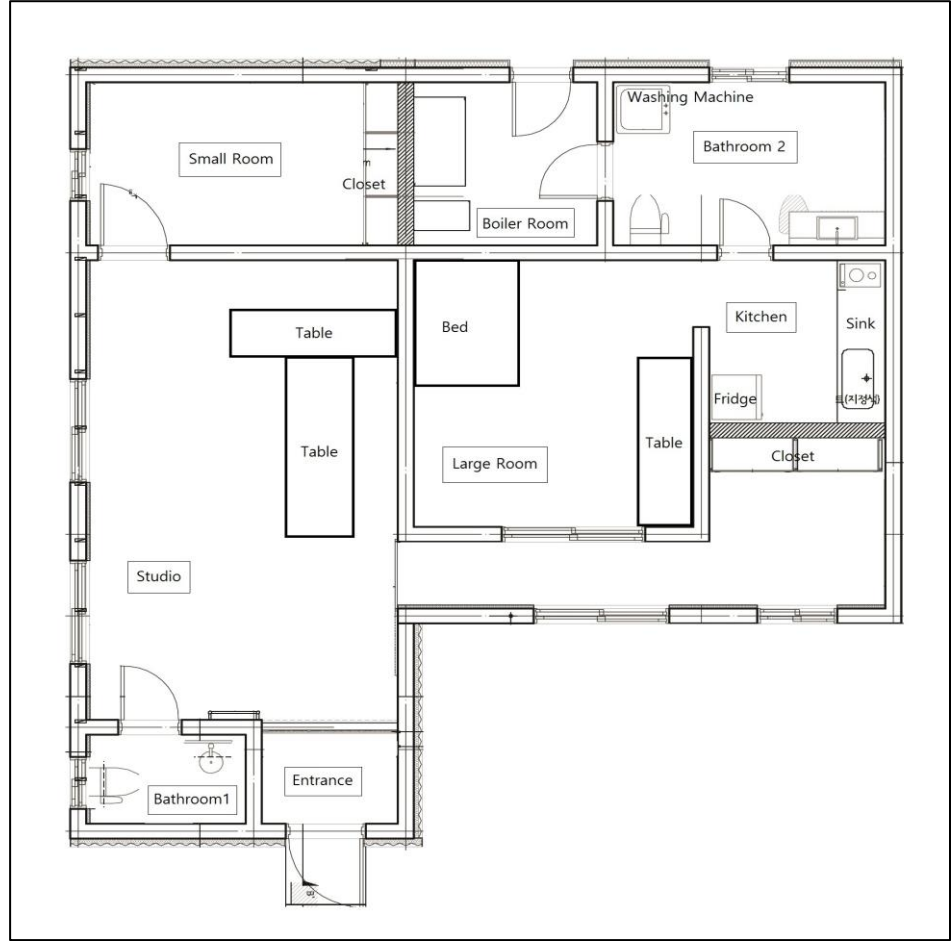
김주현, <굴집>
Joohyun Kim, A Dugout Hut,
2013-2014, steel structures,
wood, 470 x 460cm
양지리 레지던시 마당 설치 전경
Photographed by Chin Hyo sook



아드리안 비야 로하스,
<전쟁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
Adrián Villar Rojas,
El momento más hermoso de la
guerra (The Most Beautiful
Moment of War), 2014
양지리 마을 설치 전경
Photographed by Jeonghoe Kim

2016년부터는 ‘양지리 레지던시’를 본격화하여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지역적 특수성이 깊이 반영된 작업 지원을 위해 첫 장기 레지던시 작가를 모집한다. ‘양지리 레지던시’는 민북마을 (민통선 북쪽에 위치한 마을)의 전형적인 가옥구조를 유지하되 작업 공간 마련을 위해 컨테이너 형태의 건축구조를 덧붙여 리모델링한 공간이다. 스튜디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침실 공간 2개, 주방과 화장실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마당에는 김주현 작가가 제작한 <굴집>(2013-2014)이 설치되어 있다. 마당 공간과 <굴집> 내부 또한 워크샵 등 프로그램 진행 공간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양지리 레지던시' 소개



▲ 양지리 레지던시 도면



▲ 스튜디오



▲ 방 1



▲ 방 2



▲ 부엌



▲ 화장실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 소개

‘양지리 레지던스’가 위치한 강원도 철원군은 김화군, 평강군과 더불어 ‘철의 삼각 지대’라고 불리는 교통·군사상의 요지로, 일제 강점기에 남북을 오가는 경원선이 지나 가는 곳으로서 물자 이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1945년 광복 직후에는 38선 이북 지역으로 북한 영토에 포함되었다가 한국전쟁 이후 남한 영토로 지정된 수복지구이다. 양지리는 2013년까지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민간인 통제선 내부에 자리하고 있었으나 민통선 북상으로 통제가 풀렸으며, 청정지역으로서 주변의 자연 또한 잘 보존된 곳으로 두루미를 비롯한 철새 도래지로도 유명한 곳이다. 주변에는 토교 저수지, 노동당사, 수도국지, 소이산 등 중요 근대 문화 유적지가 자리하고 있으며 민통선 내부에도 안보관광이 가능한 월정리역, 제 2땅굴, 금강산 철교, 아이스크림 고지, 평화전망대, DMZ 평화문화광장 등 지역의 역사적, 지리적 특징을 보여주는 명소들이 위치해 있다. 양지리 마을은 이러한 DMZ 접경지역으로서의 역사적, 사회적, 생태학적 중요성을 현지에서 생활하며 경험해 생산적인 사고를 이끌어내는 창작과 연구의 거점이 되고 있다.

리얼디엠지프로젝트 기획위원회는 한반도의 비무장지대 DMZ(Demilitarized Zone)와 그 접경지역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동시대 미술 프로젝트 ‘리얼 디엠지 프로젝트(REAL DMZ PROJECT)’의 주최 기관이다. 비무장지대의 역설적 상황과 그 역사가 내비치는 문제 의식을 주제로, 지난 4년간 해마다 다른 장소와 공간들을 활용해 매해 새로운 주제를 탐구해왔다. 2012년 DMZ 접경지역 중 철원의 안보관광 코스의 일부 시설을 전시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전시를 개최하였고 2013년에는 강원도 철원과 서울 아트선재센터에서 각각 전시를 개최하고 더불어 월례 학술 포럼, 지역 리서치, 인문학 토크 등을 진행했다. 2014년에는 기존의 철원 안보관광 동선을 확장하여 DMZ 접경지역 내 마을과 인근 시설을 전시 장소로 사용하였고, 2015년에는 동송 시내 일대의 상점, 시장, 터미널, 성당 등을 활용한 전시를 열어 지역의 삶과 동시대 예술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모색하였다. 프로젝트 5주년을 맞이하는 2016년에는 강원도 철원 DMZ 접경지역의 지역성을 반영하고 동시대 예술의 가능성을 보다 심도 있게 실험하는 장기적인 비전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자 한다.